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8.(월) 09:00 배포 2024. 7. 8.(월) 09:00

세상을 바꾸는 미래유망기술 ‘바이오파운드리’ 특별세션 개최

- 농어업위, 한국식품과학회 국제심포지움 공동주최 및 바이오경제 특별세션 운영 -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대구 EXCO(320B)에서 ‘바이오파운드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바이오경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 관련 소재 산업 육성, 규제혁신, 정부지원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주최하고 특별세션을 편성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김성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바이오경제분야 전문가 3명이 발제를 맡았다. 연사들은 ▲바이오파운드리의 개념 및 적용 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발전 전략과 국내외 사례, ▲바이오 소재 개발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고,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성순 KAIST 교수는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최남우 ㈜인실리코젠 대표, 김선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동물자원센터장도 각각 ‘디지털 유전정보의 축적과 아카이브화의 중요성’, ‘바이오파운드리 기술발전과 축산업의 과제’를 발제하여 바이오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공유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어업위는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심포지움, 포럼 등 개최를 통해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낼 것이다.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식품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양호섭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한민수 (02-6260-12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농어업위 바이오경제특별세션 프로그램**

○ 주　　제 : **바이오파운드리 발전방안**

○ 일시/주제 : ’24년 7월 5일(금) 09:00 ~ 11:00 / 대구 EXCO 320B호

○ 좌　　장 : 김성민(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연사(3명) : 임성순(교수), 최남우(위원), 김선욱(위원)

[S27] Bio-Foundry Establishment Plan for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Sector

- Time 09:00-11:00, July 5
- Venue 320B
- Sponsored by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 Chair: Sung-Min Kim (Korea Agro-Food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Korea)

09:00 ~ 09:40

· The role of synthetic biology and biofoundries in GreenBio 2.0
· **Sung Sun Yim**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09:40 ~ 10:20

· Data-driven agro-food ecosystem
· **Nam Woo Choi** | Insilicogen, Inc., Korea

10:20 ~ 11:00

· Thinking about livestock 3.0 biofoundry
· **Sun-Uk Kim** |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orea